



미스타후르오만 이슬람 기숙학교(Mistakhurrohman Islamic boarding school)의 재학생 50여 명이 2월 23일 켈루드 분화로 화산재 피해를 입은 보로부드르 사원의 '청소 캠페인'에 동참했다.



인도네시아 중앙 자바 주의 켈루드(Kelud) 산이 지난 13일 분화해 주변 17km에 화산재 피해를 입혔다.

무슬림 학생들, 보로부드르 화산재 청소

2월 13일 분화한 켈루드 산의 화산재로 피해를 입은 보로부드르 사원이 인도네시아 종교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온이슬람(onislam)지는 2월 2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주의 미스타후르오만 이슬람 기숙학교(Mistakhurrohman Islamic boarding school) 학생 50여 명이 보로부드르 사원 청소에 자원 봉사자로 나서, 종교 화합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는 '무슬림 기도 의식'을 제외하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원 청소에 매달렸다"고 전한 <Onislam>지는 "중앙 자바 주정부 역시 이번 '청소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무슬림인의 불교사원 방문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로부드르 사원의 '청소 캠페인'은 종교를 초월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 명이

남들은 5일간 보로부드르 사원에서 켈루드 화산재를 닦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외에도 테마난군(Temanggung), 암브라와(Ambrawa), 반자르네가라(Banjarnegara), 워노기리(Wonogiri), 워노소보(Wonosobo) 등지에서의 스님들도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로부드르 사원의 판카 아르디안사야(Pangga Ardiansya) 스님은 "우리는 무

시아 스님은 "2월 말경이면 사원 청소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이때가 되면 사중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85%가 이슬람교도이고 불교도, 개신교도, 천주교도 등은 12%에 불과하다. 보로부드르(Borobudur)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섬 중부의 조크자카르타 북서 약 40km에 있는 불교의 대 건조물로, 824년 샤일렌드라 왕조가 건설했다. 대지진과 멜라우 화산의 폭발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존재가 잊혀져 있다가, 1814년 네덜란드로부터 한시적으로 자바 통치권을 인계받은 영국의 토머스 스탠포드 라플즈 경이 섬의 각지를 사찰하면서 보로부드르 유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발견됐다.

13일 분화한 켈루드 산, 주변 17km 화산재 피해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들 사원 청소 봉사자 동참 약 2000여 인도네시아인 참여... 종교 초월 화합

자원 봉사에 나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중부 자바의 여러 도시에서 온 승려를 포함한 불교도 700명도 포함돼 있다. 보요라리(Boyolali) 시의 암펠(Ampel) 사원에서 보로부드르 사원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우타마치토(Uttamacitto) 스님은 "암펠 사원의 대중 스

승려 학생들의 봉사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참여한 모든 자원 봉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화 직후부터 이어진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보로부드르 사원을 덮었던 화산재 80% 가량 청소됐다"고 밝힌 아르디안

오종욱 편집위원

美 메간 폭스 둘째 출산...아기 이름은 '보리'

미국 헐리웃 스타 메간 폭스(28)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41) 부부의 아이 이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연예매체 등은 메간 폭스가 2월 12일 남편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의 사이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태어난 폭스 부부의 둘째 아이 이름은 보디 랜섬 그린(Bodhi Ransom Green). 짐작하다시피 불교 색채가 물씬 묻어난다. 'Bohdi'는 깨달음을 지칭하는 '보리'의 영어식 표현이다. 폭스 부부가 아기에게 불교식 이름을 지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2월 12일 출산해 아직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지 않은 탓이다.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은 지난 2010년에 결혼해 두 살난 아들 노아 새넌을 두었다. 메간 폭스는 보디를 임신했을 때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아에게 동생이 생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며 어른스런 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준다고 했다. 영화 '트랜스포머'를 통해 세계적 스타가 된 메간 폭스는 건강한 몸매로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왔다.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은 영화 '도미노'(Domino) '어젠시'(Urgency), 미국 FOX 드라마 '터미네이터-사라코너연대기'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2010년 6월 24일 미국 하와이의 포 시즌 리조트(Four Seasons Resort)에서 가까운 지인 6명만 모여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그린과 전 부인 배우 바네사 마실(Vanessa Marcil) 아들 카시우스(Cassius)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와 그린은 2004년 영화 '호프 앤 페이스'(Hope & Faith)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 부부. 시작했으며 2006년 약혼과 파혼을 거듭하다 결혼에 성공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티베트 수드겐 수행자들, 美서 시위

달라이 라마에게 '종교 자유' 요구... 티베트에 소외된 탕



티베트 불교의 한 계파인 수드겐(Shudgen) 수행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이 라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군의 티베트 수행자들이 달라이 라마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22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티베트 불교의 한 계파인 수드겐(Shudgen) 수행자들이 미국 히말라야 재단(American Himalayan Foundation)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에게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를 미국 현지에서 전개한 것이다.

미국 소리(VOA)는 2월 24일(현지시각) 중국 사회과학원 학자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객좌 교수인 장보수(張博樹)가 "중국이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면 티베트를 비롯한 한 중국 소수민족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화 개혁에 실패하면 소수민족들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티베트 문제 전문가인 장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강압 통치를 피해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의 독립 염원이 이해되지만 중국의 현실에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중국 민주화 체제전환 과정 속의 티베트 문제"라는 저서 출간을 앞둔 장 교수는 티베트 독립 요구를 포기하고 중국 헌법 틀 내에서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은 현실에 맞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노르덴 켈상(Norden Kelsang) 스님의 말을 인용,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망명 사회에서 수드겐 수행자 수천여 명을 파문했다"고 전하고, "이번 항의 시위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드겐 스님들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티베트 망명 사회에서 수드겐 수행자들은 망명 정부의 의료·복지·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드겐 수행자들은 서구로 발길을 돌리거나 환속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2월 21일(현지시각)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대(對) 티베트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한편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에 대해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표방하는 소위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 영토의 4분의 1에다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건립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변형된 독립으로 중국 정부와 인민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장 교수는 티베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중국 정치 체제의 민주화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그는 중국 각 계에서 당국의 민주화 개혁을 오랜 시간 기대해 왔는데도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오히려 사상과 언론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티베트(중국명:시짱(西藏))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제 해결은 중국 민주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장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내부에 모순이 많고 위기로 가득 차 있으며 민주화 개혁에 장애물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뚝 일어나는 굴기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사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의 50년 수행의 결정체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이 책의 공리(公理)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색즉시공(色卽空)을 파지(把握)하였던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책자는 5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셈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은 책입니다. (중략) 27개의 공리를 음미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서 타-그-인 해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깨달음의 초기에는 공리를 관행할 때만 걸림 없는 해탈감을 느끼겠지만 그 관행의 횡수가 늘어나다보면 삶 전반이 해탈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지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동사십 고급과정의 교재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동사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독자들에게 공을 깨닫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 용타 지음 | 120쪽 | 10,000원 | 변형4·6면 양장, 작은 책 부록

민중사 | 구입 문의: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중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문의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여래장사상의 완결서인 『대승기신론』 여래장사상에 천착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대승기신론 강설』!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대승기신론』의 '대승'이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진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헤메고 있다. 탐승·진(眞)·치(智)·삼(三)·독(毒)의 번뇌에 더럽혀져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다. 오뉴월 푸른 땀방울이 잘 익어서 동지선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의 특징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意譯)하였다.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를 도왔다.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5.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6. 법신설은 여래장사상의 정수,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7. 마음이 곧 '여래장(如來藏)', '불성(佛性)', '중생이 곧 여래임을 일깨워준다.

대승기신론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민중사 | Tel. 02)732-2403~4